

민족고전 《천일록》의 《관방》편목에 반영된 우하영의 대책적의견

리 희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옛날책을 번역하는 사업과 함께 그것을 연구하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김정일전집》 제7권 275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선조들이 남긴 민족고전들을 대를 이어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재보로, 민족문화유산으로 내세워 주시면서 민족고전번역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가 깃들어있는 민족고전들을 번역출판하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민족고전에는 당대의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생활풍습 같은것이 반영되어있다. 그러므로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력사, 창조의 력사를 연구하는데서 민족고전은 중요한 자료로 된다.

우리 나라의 민족고전들가운데는 《천일록》도 있다.

18세기말~19세기초의 실학자 우하영에 의하여 편찬된 류서형식의 책인 《천일록》에는 중세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분야의 자료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있으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필자의 대책적의견들이 실려있다.

이에 대하여 조선봉건왕조실록에서는 《수원의 유학 우하영이 글을 올려 당면하게 해야 할 일 13가지를 진술하고 그것을 책으로 매어올렸다.》(《정조실록》 권44 20년 4월 경자), 《수원에 사는 유생 우하영이 글을 올려 〈천일록〉이라는 책을 바치고 백성들과 나라에 관한 일을 조목별로 진술하였다.》(《순조실록》 권6 4년 2월 기사)라고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1796년(정조 20년)과 1804년(순조 4년)에 임금에게 올려보낸 상소문의 내용으로 조항을 만들어 조정의 관리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자료와 그에 따르는 임금의 비답이 기록되어있다.

《관방》은 《천일록》의 편목의 하나로서 여기에는 우리 나라 중세봉건시기의 관방실태와 그를 개선하기 위한 저자 우하영의 대책적의견이 반영되어있다.

관방이란 변방의 방비를 위하여 설치하는 요새나 방어시설 또는 그 요새를 꾸리거나 지키는 일을 말한다.

지난날 봉건통치배들은 나라의 요충지라고 인정되는 곳에 일정한 군사시설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군사인원과 무관벼슬아치들을 파견하여 그곳을 지키도록 하였다.

우하영은 《관방》편목에서 이전시기의 력사, 지리학자들이 남겨놓은 자료들을 종합하여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산천형편과 방수요해처, 령액, 나루, 룡로와 수로, 관문 등의 실태를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도록 묶어놓았으며 시급히 해결을 요구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였다.

《관방》편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첫번째 부분에서는 독자적인 제목으로 항목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순서로 나라의 관방형편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두번째 부분에서는 《산수총론》이라는 항목을 달고 8도의 산과 강하천형편을 개괄하고 해안방어대책을 강구할데 대한 문제를 덧붙여 논의하였다. 세번째 부분에서는 별도로 《북로총론》, 《북도관방산천형편》이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함경도를 북관, 남관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내용서술은 도별로 산천형편을 개괄하고 도로분포상태, 방수요해처, 령, 나루, 관문 등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적들의 침입에 대처하여 사전에 싸움준비를 잘할데 대한 저자의 시정안을 첨부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관방》편목에는 적들의 침입에 대처하여 장수들이 지략을 갖추도록 하고 군사들의 전투적사기와 적개심을 높여줄데 대한 문제, 중요고을들에 방영을 설치하고 그 주변고을들의 원들을 조방장, 계원장으로 하는 협동방어지휘체계의 수립, 협수군방어체계의 수립 등 지휘체계를 완성할데 대한 문제, 중요도로를 장악하기 위하여 길목들에 방어진을 구축하며 방영설치에서 자연적인 요해처를 잘 리용할데 대한 문제, 임진조국전쟁시기 수성전에서의 실패원인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 해안방어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 등 당시의 불합리한 관방실태를 개선하려는 저자의 대책적의견들이 담겨져있다.

《천일록》의 《관방》편목에 반영된 우하영의 대책적의견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장수들이 지략을 갖추도록 하며 군사들의 전투적사기와 적개심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한것이다.

우선 장수들이 지략을 갖추도록 하여 강조하였다.

우하영은 만일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험한 지세에 의거하여 방수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논의한다면 지형이 험한것은 강이 산만 못하고 수비상 요긴한것은 기병이 보병만 못하다고 하는것은 옛날부터 군사가들의 고명한 견해이며 이미 경험해본바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기병과 보병은 쓰는데서 각기 장점이 있으니 이것은 오로지 장수로 된자가 싸움마당에서 적을 제압하는 한때의 책략에 달려있는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산천의 험한 지세도 오직 지형을 잘 살피고 그 리득과 손실을 잘 타산하여 어떻게 리용하는가 하는데 따라 만대의 리득과 해로움으로 될수 있는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적들의 침입에 대처하여 평소에 군사들의 전투적사기와 적개심을 높여주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력사적사실을 들어 서술하였다.

당시 통치배들과 일부 사람들은 임진조국전쟁초기와 청나라와의 전쟁(1636-1637)시기 여러 진들이 무너진데 대한 실지원인을 밝힐 대신 다만 옛적과 당시의 병력수에서의 차이와 이른바 당대의 운수일뿐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하영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 이미 지나간 일을 들어보면 임진년과 계사년, 병자년과 정축년의 난리때 모두 처음에는 싸우지도 못하고 저절로 붕괴되었으나 적과 교전하여 승부를 겨루는데 이르러서는 목을 벤것과 사로잡은것이 대등하거나 혹은 많았다고 하면서 이것은 실로 옛날과 지금의 병력수가 서로 차이나는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증거라고 하였다.

그는 두려워하거나 강직하고 용감한 마음은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르며 서로 차이가 있

다고 하면서 만일 사변이 있으면 평소에 훈련이 부족한 군사가 갑자기 임의의 방면에서 달려드는 강한 적에게 패하지 않는것이 적지만 날과 달이 지나 눈과 귀가 적의 장점과 자기의 약점에 익숙되어 그것을 상세히 안다면 비록 흩어진 군사나 패잔병들이라도 공로를 세워 죄를 씻으려는 마음을 한번 가지지 않는자가 없다고 하였다.

우하영의 이러한 의견들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무장장비나 병력수보다 사람들의 정신적힘을 중요시한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인것이라고 볼수 있다.

《천일록》의 《관방》편목에 반영된 우하영의 대책적의견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당시의 군사지휘체계가 가지고있는 결함을 극복하고 군사지휘체계를 합리적으로 세워놓아야 한다고 한것이다.

그는 우선 당시의 불합리한 군사지휘체계를 바로잡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충청도와 경상도는 태백산줄기를 경계로 하였는데 령밑에 있는 여러 고을들은 모두 요해지들이었다. 그가운데서도 충주는 조령과 죽령 두 고개밑에 위치하고 또 인구와 물산이 도내에서 으뜸이었다.

우하영은 이전에 충주진영을 설치한것은 비록 방수책을 치밀하게 세우자는 의도였다고 볼수 있으나 만일 사변이 있으면 하나의 진영으로는 길을 막아 차단하기 어려울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충주목소재지에 방영을 설치하고 그 영장에게 토포장을 겸임시켜 관할하고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미 충주진영이 없어졌으면 그 진을 옮겨 황간군수가 무관군수로서 겸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개 화령(化寧)은 병영과 거리가 멀지 않아 상주와 안팎으로 서로 호응할수 있을것이나 추풍령은 병영과 거리가 좀 멀어서 만일 경상도에 사변이 있게 되면 병영 하나로는 령량을 나누어 두곳을 지켜내기 어려울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황간이 령밑에 있기때문에 영동(永同)과 합쳐 하나의 고을로 만들고 겸진으로 하며 전적으로 관할하고 통제하도록 하면 유사시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우하영은 또한 주장임명을 명백히 하고 주장이 있는 고을과 린접한 고을들을 주장에게 소속시켜 협동방어지휘체계를 세울데 대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는 평안도의 관방형편에 대해 서술하면서 정묘란때 광산성과 정주성이 함락된 원인이 성이 견고하지 못하는데 있었다고 하는 통치배들의 말을 부정하고 《그 리유는 광산과 정주의 두 군수가 주장의 권한을 다투면서 방수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세우지 않은데 있었다. 적들이 이 기회를 타서 성에 돌입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성이 견고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었겠는가? 비록 금성탕지라도 사람들이 서로 해치려는 마음이 덜어지지 않으면 어찌할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일시 함락된 성이 다시 보수되지 못하고 군량미와 병쟁기만 남겨두었는데 공연히 무너진 성인 쇠퇴해진 광산에 내버린채로 두었으니 실로 학식과 견문이 있는 사람들의 근심하는바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제라도 온전하게 석축하고 약간 보수하고 백성들을 모집하여 광산군수를 수성장으로 하고 그에게 전적으로 관할하고 통제하도록 하면 유사시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우하영은 주장이 있는 영읍의 주변고을의 원들로 조방장과 계원장으로 삼아 협동방어지휘체계를 세울데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그가 내놓은 삼남지방의 협동방어지휘체계편제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밀양에 방영을 설치하는 경우 창녕군수를 조방장으로, 청도군수를 계원장으로 한다.
 상주에 방영을 설치하는 경우 군위군수를 조방장으로, 비안군수를 계원장으로 한다.
 충주에 방영을 설치하는 경우 청풍군수를 조방장으로, 연풍군수를 계원장으로 한다.
 남원에 방영을 설치하는 경우 운봉군수를 조방장으로, 임실군수를 계원장으로 한다.
 진위에 방영을 설치하는 경우 안성군수를 조방장으로, 남양군수를 계원장으로 한다.

방영을 둔 고을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작은 고을원들로 조방장과 계원장으로 삼아 삼남지방의 협동방어지휘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우하영이 제기한 의견은 평시에 방영장과 그에 호응하는 조방장과 계원장을 정해놓고 각기 수비대상을 분담하고 고을들을 병영의 통제밑에 두고 큰 병력으로 적을 쳐야 할 때에는 힘을 합쳐 치고 혹은 류동하면서 적을 쳐야 할 때에는 분산하여 적을 치는 등 립기응변으로 적의 침입에 대처할수 있는 비교적 합리적인 방어지휘체계였다.

우하영은 이러한 협동방어지휘체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그는 전라도 운봉과 남원에 방영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서술한 다음 경상도에서 사변이 있을 때 팔령치가 적의 침입로가 될수 있으므로 운봉군수가 주장이 되면 남원군수가 많은 군사들로 그에 호응할수 있고 반대로 전라좌도에 위험이 조성되면 남원군수가 주장이 되어 요충지를 차지하고 운봉군수가 조방장이 되어 서로 협공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주장을 둔 고을의 원들을 정황에 따라서 주장으로 혹은 조방장으로 엇바뀌가며 직능을 수행할데 대한 우하영의 제안은 방영장의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한데 기초하여 내놓은 제안으로서 비교적 현실적인 의견으로 볼수 있다.

《관방》에 의하면 방영장의 임무는 병사나 수사와 달라서 그 직분이 평시에는 한개 고을의 군수이고 유사시에는 요새에 의거하여 적들이 쳐들어오는 길목을 지키는것으로서 매우 중시되었다.

이와 함께 우하영은 군적에 등록된 인원수가 적은 고을들에서의 대오편성방법에 대하여 밝히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이 남원과 운봉은 모두 큰 고을이므로 진을 설치하면 독자적으로 적을 막아낼수 있으나 주변의 작은 고을들은 원래 군적에 등록된 인원수가 적어서 원들을 조방장, 계원장으로 임명하여도 호응할수 없을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하영은 조방장과 계원장수하의 군사가 10초(천명정도)미만이면 적들의 침입을 막아내기가 어렵겠지만 린접고을의 군사들을 옮겨다 《어린작대법》으로 대오를 편성하면 그 수도 많아지고 평상시에 주장수하의 군사로 되어 조련을 받을수도 있고 차지한 지역을 순찰할 때에도 모두 관할하고 통제할수 있겠는데 고을의 크고 작은것이 무슨 큰 문제로 되겠는가고 하였다.

《어린작대법》이란 한 고을안의 군적에 등록된 장정들을 모두 해당 고을원에게 소속시키고 그들을 병역에 복무하는 《정군》과 장비를 부담하는 《자보》로 나누고 고기비늘모양으로 방어진을 편성하여 런대적인 책임을 지우며 부족되는 군정수는 이웃마을에서 보충하는 군총모집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종래의 고을소속에 관계없이 군정들을 한곳에 모집하여 병역을 지게 하던 방

법보다 병역통제에 유리하고 또 같은 동네사람끼리 대오를 편성하였기때문에 어려운 일에 부닥치는 경우에도 서로 도와주면서 곤난을 극복하는 기풍이 절로 생겨나 전반적인 대오 관리에 편리하였다.

우하영은 또한 경상도와 충청도를 실례로 들면서 협수군지휘체계를 세울데 대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에 의하면 함양과 순흥의 군수를 경상도의 협수장(協守將)으로 하고 보은, 황간, 단양의 군수를 충청도의 협수장으로 하고 안의, 풍기, 영춘, 청산, 영동 등 고을들을 각기 해당 협수장수하의 속읍으로 만든다. 갑자기 령이남에 사변이 생길 때 함양군수가 안의군사를 거느리고 팔령치를 수비하면서 남원방영과 호응할것이고 또 순흥군수가 풍기군사를 거느리고 죽령에 의거하여 수비하면서 단양협수장과 호응할것이다. 문경은 본래 수성장(守城將)을 겸하였으므로 함창군사를 거느리고 조령관(鳥嶺關)을 수비하면서 충주방영과 호응할것이다. 황간군수는 영동군사를 거느리고 추풍령에 의거하여 수비하고 보은군수는 청산군사를 거느리고 화령(化寧)에 의거하여 수비하는 방법으로 다같이 상주방영과 호응할수 있을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평시에 그 지휘체계를 세워놓고 령내외에 의거하여 각기 방수의 믿을직한 진지로 삼고 힘을 합쳐 험한 요새처를 장악한다면 이는 임진란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하는 방도로 될수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우하영이 제기한 이와 같은 의견들은 당시의 불합리한 군사지휘체계의 약점을 극복하고 합리적으로 바로잡을수 있는 비교적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볼수 있다.

특히 《어린작대법》으로 고을방어체계를 세울데 대한 의견은 마을보위를 해당 마을에서 살고있는 사람들로 하여야 한다는 《민보》사상을 반영한것으로서 봉건통치배들이 조직한 오위제도보다 일정하게 긍정적측면을 담고있다.

《천일록》의 《관방》편목에 반영된 우하영의 대책적의견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적들이 침입할수 있는 도로들을 막기 위하여 길목들에 방어진을 구축하며 방영설치에서 자연적인 요해처를 잘 리용하여야 한다고 한것이다.

우하영은 경기도의 관방형편에 대해 분석하면서 만일 서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침입자들이 개성으로 곧추 뻗은 직통길을 거치지 않으면 반드시 마전, 삭령, 련천, 장단의 사이길을 리용하게 되어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 길은 협곡으로 통하는 사이길로서 험준한 산발로 하여 경기도와 황해도로 겨우 통할수 있으므로 여기에 약간한 방어요새를 구축해놓으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오는 근심을 막을수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북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적들이 영평, 포천 등 직통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리용하려면 삼방으로부터 큰 여울을 통해 들어오는 길밖에 없으므로 삼방에다 영구적인 요새를 구축하자는 의론이 이전에도 제기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동쪽과 남쪽방향에서 들어오는 두 길의 방비가 가장 허술하다고 하면서 때문에 남쪽길로는 예로부터 수원에다 방영을 설치하였고 지금에 와서도 류수영을 이설하여 큰 길을 차단할수 있게 성을 쌓아 만전을 기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삼남지방으로부터 들어오는 큰길은 사방으로 갈라졌다가 모두 경기도에 모이게 되어있고 충청도지역의 여러 고을들에는 험한 자연요새에 의거하여 방영을 구축할만한 곳이 전혀 없고 또 의지할수 있는 이름난 산과 큰 강도 없다고 하였다.

때문에 적들이 거침없이 북상하여 일제히 진위경계에 모여들었다가 비로소 하나의 길로 수십리를 지나 오산에 이르게 되며 또 그로부터 두 길로 나뉘어져 하나는 수원을 거치게 되고 하나는 룡인(龍仁)을 거쳐서 모두 한성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으므로 진위야말로 삼남의 요해처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진위에 경기도의 좌영을 설치하고 이어 양성과 합쳐 하나의 부로 만들고 또 독진으로 하여 수원과 함께 보거지세(輔車之勢 : 수레덧방나무와 수레바퀴가 서로 의존한다는 뜻으로 서로 떨어질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것을 이르는 말-역주)로 삼는다면 안팎으로 2중관문으로 되어 마치도 울타리나 병풍을 친것같이 견고하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도로방비를 위해 길목들에 방어진을 구축할 때 자연적인 요해처를 잘 리용할데 대하여 밝혔다.

그는 황해도의 관방형편을 분석하면서 청석동과 같은 천연요해처에 방영을 설치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에 의하면 청석동은 매우 좁고 양뿔같이 꼬불꼬불한데 왼쪽으로는 대흥, 백치와 같은 견고한 지세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전포, 벽란도로 막혀있다. 두 산이 담벽같이 서있고 그 사이로 하나의 오솔길로 통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실로 한명이 만명을 당할수 있는 지세라고 할수 있다.

대개 서쪽길을 따라 들어오는 적들은 왼쪽으로는 산골고을들인 수안, 토산, 마전, 삭령 등지의 험준한 산밭이 막아서고 오른쪽은 해안연선을 따라 들어와야 하는데 이곳은 큰 강의 사나운 파도가 있기때문에 반드시 배를 리용하는데서 우려되는바가 있으므로 모두 적들이 말을 몰아 쳐들어올수 있는 지세가 못된다.

오직 이 청석동 하나의 길이 목구멍이나 문지도리같이 되었으니 자연적으로 설치된 경기도와 황해도의 형승인것이다.

그는 그 지세를 보면 호로병같은데 입구가 대단히 좁고 험하여 자연적인 문과 지계문처럼 되어있고 더우기 관방을 설치할수 있는 흙과 돌이 이곳에 다 구비되어있기때문에 축성비용도 많이 절약할수 있다고 하면서 만약 여기에다 수백발의 성첩을 쌓고 진장 한명을 두고 지키게 하면 그 견고함이 바야흐로 해당 길을 막을수 있는 형승으로 될것이고 황해도지역에서 싸울 때의 큰 진으로 될것이라고 하였다.

우하영이 제기한 이러한 의견들은 적들이 침입할수 있는 도로를 사전에 장악할수 있으며 일단 유사시 자연적인 요해처들에 의거하여 적은 력량으로도 적들을 막을수 있는 비교적 현실적인 제안으로 볼수 있다.

《천일록》의 《관방》편목에 반영된 우하영의 대책적의견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임진조국전쟁시기 수성전에서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성둘레에 토성을 쌓자고 한것이다.

우하영은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수성전을 잘하기로 세상에 알려졌으나 임진왜란때에는 성을 지켜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세나라시기에는 대개 성이 모두 높은 산의 맨꼭대기 험한 지대에 있었기때문에 이에 의거하여 지키는데 유리하였으나 고려로부터 그이후에는 읍터가 다 별방지대로 옮겨졌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의 성들은 돌로 쌓고 그 높이와 넓이도 두어길에 불과하며 성밖에 있

는 해자가 크지 못하기때문에 임진란때 왜적들이 남원성과 진주성을 손쉽게 함락하였다고 하였다.

당시 남원성에 기여든 왜적들은 성으로 돌입하기 위하여 새초와 쉼나무, 논판의 버를 베여 큰 단으로 묶어서 해자를 메우고 잠간사이에 성높이와 가지런하게 만들어놓고 그것을 밟고 성에 뛰어들었다.

또 진주성싸움때에는 왜적들이 성밖에 있는 참대밭에서 참대를 베어다 큰 단으로 묶은 다음 그것을 성둘레에 세워놓고 아군의 화살과 돌을 막아내였고 그안에서 총을 쏘았는데 탄환이 비발치는듯 하여 성안의 군사들이 머리도 쳐들지 못하였으며 결국 성이 함락되었던것이다.

그는 원래 진주성밖에 참대밭이 많아서 왜적들이 참대를 묶어 리용하였는데 만일 참대가 없었다면 다른 쉼나무나 나무를 베어서 그것으로 참호를 메우고 성을 공격하였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마땅히 성을 굳게 지키는 방도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우하영은 이렇게 임진조국전쟁시기 적들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성이 함락되게 된 원인을 분석한 다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로서 성둘레에 흙으로 외성을 쌓을것을 제기하였다.

그는 성이 있는 곳에서 모두 흙으로 외성을 쌓는 방법을 적용하여 성밖에다 토성을 쌓아놓으면 내성이 비록 견고하고 높지 못하여도 적을 막아낼수 있으며 굳건히 지키는 방도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그 방법과 우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성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지형을 고려하여 40~50보로 한정해서 그 둘레에 외성을 두르고 외성우에 흙으로 견고하게 대를 쌓아야 한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성쌓는 방법을 보면 바깥면은 깎아세운듯 하게 쌓고 안벽은 평탄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적들이 기여서 오를수 없게 하고 성안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성에 올라가기 쉽게 하려는 의도로부터 출발한것이다.

그러나 이 토성은 안벽과 바깥벽을 다 깎아세운듯 하게 쌓고 잔디를 입힌다. 비록 돌과 벽돌로 쌓은 성에 비길수는 없으나 성우에다 여러가지 성가퀴들을 쌓아서 지키면 적들이 곧추 기여서 올라올수 없고 비록 홍이포[紅夷砲 : 조선봉건왕조시기 네데를란드에서 들어온 대포-역주], 호준포[虎蹲砲 : 옛날 대포의 한가지. 처음 만든것은 나무틀우에 돌을 올려놓고 튕김힘으로 날려보냈는데 후에는 쇠로 포신을 만들고 화약을 채워 그 폭발하는 힘으로 돌을 날려보내게 되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신포(信砲)라고도 하였다.-역주] 등을 발사하여 한쪽면이 파괴된다 하여도 내성은 아무런 피해도 없을것이다.

혹시 나무를 묶어 몸을 가리우고 그안에서 총을 쏘아 진주성때와 같은것이 있어도 외성이 있으므로 포탄과 탄환이 내성에까지 미치지 못할것이며 쉼나무단으로 해자를 메우고 넘어와도 외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내성으로 철수하여 내성을 지키는 군사들과 협동하여 성우에서 활과 총을 쏘면 적들은 외성과 내성사이에 끼워서 오도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될것이다.

이처럼 적들이 진퇴량난의 처지에 빠지게 되었을 때 공격하면 적들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며 비록 홍이포, 호준포 등 포를 리용하여 내성을 파괴하려고 하여도 이미 화살과 총탄이 비발치듯 하는 외성과 내성사이의 함정속에서 결코 그 어떤 교묘한 술책을 쓸

수 없다.

더우기 적들은 총을 올려쏘게 되고 아군은 성우에서 내려쏘게 되어있는 유리한 조건에서 필경 적들이 오래 지탱하지 못할것이며 또 도망치려고 하여도 바깥에 쌓은 토성의 안벽 역시 깎아지른듯 하여 빨리 도망칠수도 없으므로 한명도 살아 돌아가지 못할것이다.

그는 토성을 쌓는 방법은 《관수만록》에 자세히 수록되어있다고 하면서 대체로 흙으로 쌓는것은 돌로 쌓는데 비하여 로력이 3분의 1밖에 들지 않고 또 평지성인 경우에 더욱 편리하므로 변방방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실로 깊이 연구해보아야 할 문제이라고 하였다.

수성전과 관련한 우하영의 제안은 비록 완성된것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임진조국전쟁때의 교훈과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수성전의 우점을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내놓은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으로 볼수 있다.

《천일록》의 《관방》편목에 반영된 우하영의 대책적의견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중요해상통로에 있는 섬들과 물목에 방어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한것이다.

그는 대체로 해안방어가 육지방어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고 하면서 그 리유는 적들의 배가 바람과 조수를 리용하므로 육지에서 봉화대에 불을 지펴서 서로 신호하고 파발을 파견하여 통보하는것에 비하면 속도가 빠르기때문이라고 하였다.

우하영은 해안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전라도의 군산도, 경기도의 손돌목, 평안도의 신미도와 가도 등 중요해상통로에 있는 섬들과 물목에 방어진을 설치하고 강화할것을 주장하였다.

군산도는 오늘의 전라북도 서북부 바다가운데에 있는 섬인데 《관방》에 의하면 군산도 주위의 바다는 파도가 높고 크고작은 섬들이 뒤섞여있어 배가 다니는데 안전하지 못하다. 이 섬에 이르러 왼쪽방향으로 가려면 암초가 있고 수심이 얕은 근심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려면 세찬 파도로 하여 모두 배가 다니는데 불리하다.

다만 군산진의 남쪽과 북쪽에 두 산이 장벽처럼 마주 서있어 그사이가 자연적인 해안 관문을 이루고있다. 그 관문을 벗어나면 마치 떠돌이 배를 띄운듯 하고 바람도 없고 물결이 잔잔하여 배군들이 이곳을 삼남배길의 목구멍이라고도 하고 또 문지도리라고 말하군 한다고 하면서 우하영은 여기에 병쟁기와 군량을 증강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기도에서는 민간에서 손돌목이라고 이르는 곳이 세도의 바다길에서 가장 험한 곳으로 되어있는데 대체로 물살이 빠르고 사방 둘러싸인 산들이 서로 얹혀져있어 오가는 배들이 이곳에 이르러서는 매번 로련한 배사공들도 두려워하며 땀을 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손돌목은 심주와 통진사이의 교차점에 있기때문에 만약 량쪽대안에 각각 50~60명 정도의 포수와 사수를 두고 이어 한명의 장수를 임명하여 립기응변한다면 비록 100만의 적이라도 이 사이에서는 손쓸수 없을것이라고 하였다.

우하영은 평안도 선천의 신미도, 광산의 가도에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진을 설치할데 대해서도 제의하였다.

이와 같이 《천일록》의 《관방》편목에는 당시 나라의 전반적인 관방실태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저자의 대책적의견들이 반영되어있다.

물론 여기에는 저자의 세계관적제한성으로부터 임진조국전쟁시기 남원성싸움과 진주성싸움에서의 실패원인을 봉건통치배들이 국방보다 안락과 치부에 눈이 어두워 적들의 침

입에 대쳐하여 사전에 방수대책을 철저히 세워놓지 않은데서 찾지 못하고 또 그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밝히지 못한것과 같은 일련의 부족점도 있다.

그러나 《천일록》의 《관방》편목에 반영된 우하영의 대책적의견들은 국방문제를 나라의 제일가는 중대사로 보고 무방비상태에 있는 당시의 관방형편을 개선하여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구원해보려는 필자를 비롯한 우리 인민들의 애국심이 반영되어있으며 그 실현방도를 비교적 현실성있게 연구한것으로서 긍정적인 측면들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앞으로 민족고전문헌들에 대한 번역과 연구사업을 보다 심화시켜 중요민족고전들에 대한 번역편찬사업을 빨리 끝내여 우리 인민의 값높은 향유물로, 나라의 재보로 되게 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관방, 요해처